

고린도전서 8장

1.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4.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7.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8.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 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제물

A. 생활 문화

- 축제 / 교제의 장

1-6. 지식과 사랑의 대결

A. 지식을 드러내는 이들의 특징

- 자신을 드러냄
- 편을 나눔
- 답은 맞는데 적용이 아름답게 되지 않는다

B. 사랑을 드러내는 이들의 특징

- 상대방을 높임
- 연합하게 함

C. 심각한 대립

- 제1그룹 -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우상 숭배가 아님
- 제2그룹 - 우상에 바쳐진 또는 쓰일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D. 우리는 어디서 부터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드러내는 것도 다르다

- 창조주 하나님
- 예수 그리스도 -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7-13. 사랑에 근거한 삶

A. 우리가 다 그런 지식이 있는 줄 아나 (1절) VS 그렇지 않다

- 내 중심 VS 연약한 자 중심
- 정말 회심한 초신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 먹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 어떤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가?

B. 같이 죽자 VS 같이 살자

- 자유와 방종(self-indulgence)의 차이
 - i. 아담과 하와 - 자유의 남용
- 참 자유는 주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
- 참 자유 = 말씀 + 사랑

C. 형제에게 죄를 지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 14.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5.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 내 예배 태도 / 삶의 태도 / 언어는 언제나 사역의 언어이다

D. 형제를 살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자